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

고대구로병원뉴스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9월 18일 월간



개소 1주년

낮과 밤 잠들 수 없었던 365일

서울 서남부권을 책임지는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주년을 맞았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고대 구로병원은 철저한 준비 끝에 2016년 9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1년, 숨가쁘게 달려온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자.

월 5,000여명이 넘는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찾은 그곳,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그 어떤 곳보다 환자의 생명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어 민첩함과 세심함,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곳이다. 일각을 다투는 치열한 의료전선에서 환자의 사활은 선진 의술, 뛰어난 의료진 그리고 첨단 장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름에 걸맞게 서남부권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만의 특징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팀 구성

고대 구로병원은 서울 서남부 권역을 책임지는 최상위 의료기관이다. 그만큼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상태가 위중한 중증 환자의 처치도 가능해야 한다. 이에 고대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숙련된 응급전문인력을 전진배치하여 24시간 상주하게 한다. 또한 중증외상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유기적인 타과 진료 협력시스템으로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선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응급의료의 거점, 헬리포트

국내 어디서든 최단 시간 내 모든 응급환자의 헬기 이송이 가능토록 신관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는 물론 긴박한 장기이식수술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 재해 현장의 원활한 긴급 출동을 위해 119특수구조단과 함께 항공구급(Heli-EMS)교육 및 환자 처치 훈련을 실시하며 응급환자 소생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도에 따른 공간 분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감염 전파 위험 여부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 집중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이 오롯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전용 진료구역에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구축한 음압격리실도 운영 중이다.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소아진료실과 소아전용병상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권역 내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강화 국민건강증진 기여

의료 불모지로 불리던 구로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연장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고대 구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바탕으로 권역 내 중증외상 및 응급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응급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해 보건 의료 전반에 걸친 핵심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헤어짐



첫 시작의 두근거림, 가슴 벅차던 감사함,
손끝 저리던 설렘
그 모든 감정들 위로
켜켜이 먼지가 쌓이듯
세월이 내려앉아
영롱한 빛깔을 감추어 버렸다.
그렇게 무딘 연필심 마냥 멍뚱그러져
과연 그런 날들이 있었던가 싶던 어느 날,
시간은 가차 없이 다가와
무심히 특,
마지막을 알려주었다.

교원 퇴임식 (2017. 8. 30)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학문연구와 진료, 교육에 매진한 치과 신상완 교수, 영상의학과 설혜영 교수, 신경외과 정홍섭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조숙행 교수, 간담체외과 최상룡 교수, 순환기내과 오동주 교수를 위한 자리였다. 생명을 살리는 인술을 실천하며 숭고한 박애정신으로 환자를 돌본 여섯 명의 스승은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귀감이었으며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되찾아 준 은인이었다.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시작하는 그들의 앞날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석별의 정을 고했다.



	<p>치과 신상완 교수는 2007년 임상치의학연구소를 설립해 정부 및 외부기관 의뢰 과제를 수행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및 아시아치과보철학회 회장 등 학회의 요직을 맡아 우리나라 치과보철학, 의학 및 치의학 임상연구 분야 발전에 공헌했다.</p>		<p>신경외과 정홍섭 교수는 대한신경외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신경외과학회 감사와 대한신경외과 서울-경인지회 총무,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논문 140여 편 이상 게재하며 우리나라 신경외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p>		<p>간담체외과 최상룡 교수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3례의 간이식을 시행했다. 2004년 의과대학장을 역임해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대한외과학회, 대한간이식 및 간담체외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큰 공헌을 했다.</p>
	<p>영상의학과 설혜영 교수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권의 영상의학 번역서를 발간했으며 고대의대 통합교육위원장을 역임해 의학교육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1996년 대한신경중재치료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p>		<p>정신건강의학과 조숙행 교수는 월경전불쾌기분장애, 임신 및 폐경에 대한 우울증의 기전 및 치료 등 우리나라 여성정신의학 분야에 큰 공을 세웠다. 2009년 한국여성정신의학상, 2015년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았다.</p>		<p>순환기내과 오동주 교수는 1991년 심혈관조영술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최신 심혈관 중재시술 기법을 후학들에게 전수했다. 252편의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했고 대한심장학회 수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공헌했다. 구로병원장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면서 구로병원 신관 증축과 의료원 시스템 개혁에 봉사했다.</p>

일반직 퇴임식 (2017. 7. 26)

특수간호팀 오미숙 팀장과 진단검사의학과 최재열 부팀장, 특수간호팀 조선옥 수간호사 세 명을 위한 날이었다. 3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구로병원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최재열 부팀장

“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지금 이 순간
다양한 감정들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



조선옥 수간호사

“
아직도 이 변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동안 옆에서 이끌어주시고
믿어주셨던 모든 동료분께 감사 드립니다
”



오미숙 팀장

“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쉽지만 훌기분한 심정으로 떠날 수 있어 행복하다
”

세계 최초 약제 내성 말라리아 빛으로 잡는다!

고대 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채승 교수팀이 빛을 쬐는 광역학치료를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했다. 철 나노입자를 이용한 광역학치료를 실시하면 말라리아의 원인 기생충인 적혈구 내 열원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 냈다.

광역학치료란 빛에 반응하는 이상 세포만을 죽이는 최신 치료법이다. 광과민제를 혈액에 주사한 뒤 적정 파장의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빛을 받은 광과민제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유도해 정상적인 세포를 제외한 말라리아 병원체와 세포를 사멸하는 것이다.

임채승 교수팀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 나노 크기의 광 기능성 나노입자(photofunctional nanoparticles, PFNs)에 광과민제를 붙여 말라리아 감염 혈액에 주입한 뒤 가시광선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말라리아를 가진 적혈구만을 선택적으로 불활성화시켜 제거하는 말라리아 치료를 시도했으며, 이후 8일간의 배양검사를 통해 적혈구 내 말라리아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된 것을 확인했다.

말라리아는 현재까지도 퇴치 및 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약물과 최근 개발된 치료제인 항말라리아 약제아르테미시닌까지도 내성을 가진 다중약물내성(MDR)말라리아가 출현하

면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임채승 교수팀의 연구는 항말라리아제와 치료법 개발에 세계적인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중약물내성 말라리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큰 의의를 가진다.

MS Health UK는 2015년 연구보고서(Securing New Drugs For Future Generation : The Pipeline of Antibiotics)를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관리가 적절치 못할 경우 말라리아, HIV, 결핵, 기타 세균 감염증의 항생제 내성 변형군(strains)에 의해 2050년 까지 연간 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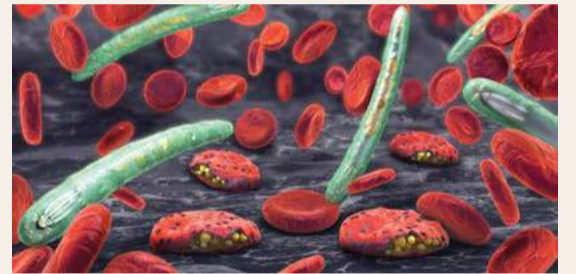
한편, 이번 연구는 3월 29일 세계적인 과학잡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에 게재됐다.

[도움말 : 진단검사의학과 임채승 교수]

말라리아 원충,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말라리아 원충은 척추동물의 적혈구에 감염되어 열성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서 전 세계에서 매년 1억 명 이상을 감염시켜 80만 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기생충이다.

그런데 이런 말라리아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약제 내성이다. 기존 치료제로는 사멸시킬 수 없는 변종 기생충이 출현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말라리아 광치료법 개발, 어떤 의의를 가지나요?

말라리아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仁獸)공통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전염병으로 꼽히지만 뚜렷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다중약물내성(MDR)말라리아의 출현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약제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 균도 광역학 치료를 이용하면 사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 말라리아 퇴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뉴스레터 [환자 중심의 병원 부서를 만나다] 중증외상센터

Q1.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증외상센터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중증외상수련센터는 남다른 체계 수립과 관리를 바탕으로 외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보건의복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련을 받는 전임의만을 위한 모형 뼈를 이용하여 외과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수련, 연구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카데바 실습 및 동물 해부를 통하여 의료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달 전국 병원의 저명한 교수님을 초청하여 외상 관련 강의를 개최하여 학문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2년간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외상 전문 핵심 인재로 양성합니다.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을 위한 외상팀을 구성하고 당직체계를 운영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외상환자에게 빠른 응급진료를 실시하여 퇴실까지의 소요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외상 환자들은 아무래도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나요?

중증외상수련센터의 모든 전임의, 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의 '내원-처치-치료' 간격을 효율적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시내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이송에 한시간 이상 소요될 응급환자가 헬기이송으로 단 10분만에 고대 구로병원까지 성공적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무사히 마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와 MOU를 체결하여 소방항공대 교육 및 현장에 투입하여 소방항공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상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및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외상 환자들에게 빠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다리가 차에 깔려 혈압이 매우 불안정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

황에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는 목발을 이용하여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께서는 어느날 "이제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어요, 교수님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래로 내원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점점 좋아졌어요, 교수님은 친절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오종건 교수님 덕분에 살았고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웃는 환자분의 표정을 보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앞으로도 저같은 환자를 잘 치료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자신의 경과에 만족하시는 외상환자를 마주하게 되면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Q4. 향후 센터의 중점 계획은?

국내 중증외상환자 소생률 향상에 주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외상전문의 육성은 물론 외상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질관리를 통해 외상진료의 질을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Q5.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외상수련센터는 다양한 외상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체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더 신속한 시술과 수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외상환자의 진료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법과 주의사항!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은 식중독 주의사항 및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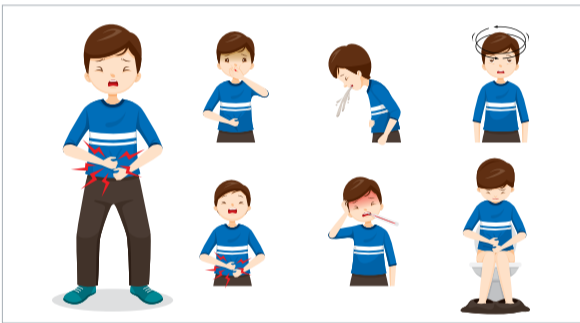
01 식중독이란?



식중독이란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음식이나 물과 함께 섭취해 발생된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02 식중독 증상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03 식중독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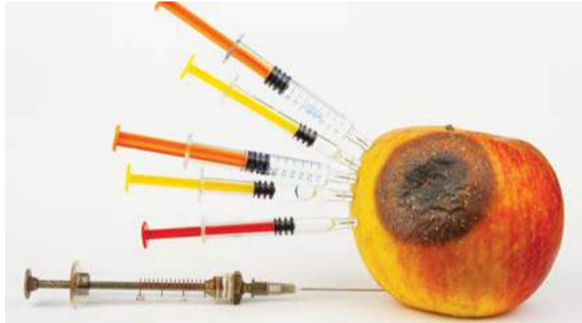
식중독의 일차적인 치료는 구토나 설사로 인해 발생한 체내 수분 손실과 전해질 불균형을 수액공급을 통해 교정하는 것입니다. 식중독 환자는 탈수가 심하지 않다면 식사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끓인 물 1L에 설탕 4 티스푼, 소금 1 티스푼) 시중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설사가 심한 상태에도 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탈수 예방에 좋습니다. 탈수가 너무 심해 쇠약해진 상태거나 구토가 심해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정맥 수액을 맞는 것이 좋고 혈변이나 발열이 심한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식중독 증상인 구토는 위장 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반응이고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증상이 심하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져 회복이 지연되고 경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04 식중독에 대한 가정 내 응급처치



- 음식 대신 수분을 섭취한다.
- 끓인 물 1L에 설탕 4, 소금 1 숟가락으로 타서 마신다.
- 이온 음로도 효과적이다.
-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을 섭취한다.
- 혈변, 심한 탈수, 고열, 심한 설사 시에는 병원을 방문한다.

05 식중독 예방법



가정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을 취급, 조리 시 식중독 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않기.
- 한 번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봉지에 싼 후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할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기.
-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기.
- 부엌 내 모든 곳을 청결히 유지하고 조리대, 도마, 칼, 행주의 청결에 특히 주의하기.
- 상가, 음식점, 수학여행 등 집단 급식에는 날음식 접대를 피하기.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 어패류를 만지지 않기.

06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원칙!



-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자.
- 물은 끓여 마시자.
- 음식물은 익혀먹자.

[글: 원내기자:이혜림 간호부 / 출처: 질병관리본부]

생생건강

발견 어려운 신장암, 건강검진으로 대비!

신장암은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실질 부위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높지만 일단 암이 진행되면 정맥혈관에 혈전을 만들고 폐, 림프절, 간, 뼈, 뇌 등 전방위적으로 전이돼 치료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신장암은 등 쪽에 가까운 후복막 장기이므로 발견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혈뇨, 옆구리통증, 옆구리 부위의 만저는 혹 이렇게 3가지 증상이 주 증상인데 이마저도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 3가지의 주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이 어려운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장암 수술은 크게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수술로 나뉜다.

의료장비와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수술을 더 많이 시행한다. 특히 부분 신절제술의 경우에 로봇수술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신장암의 크기가 크거나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원칙으로 하지만 암의 크기가 작고 세밀한 수술을 요할 때는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면서 수술 시간은 단축하고 안전한 수술을 진행한다.

신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며 비만이나 고혈압 등 만성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 만성신부전같이 신장암 고위험군의 경우 정기적인 소변검사와 신장의 초음파 검사와 같은 영상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비뇨기과 김중욱 교수]

가을, 으슬으슬 인플루엔자 주의보!

인플루엔자는 가을부터 시작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감염병으로 특히 이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기침, 인두통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인플루엔자는 고열을 동반하고 인두통이나 기침 이외에도 전신근육통, 설사, 복통과 같은 전신증상을 동반하여 몸살이 심한 감기처럼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금세 회복되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약자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새롭게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는 예방 주사의 면역 효과는 약 70~90% 정도로 6개월 정도 지속된다. 독감은 맞은 후 2주 후부터 면역체계가 생기기 시작하므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예방 접종을 해야 겨울과 봄에 기승을 부리는 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이외에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독감 환자의 침과 콧물 같은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전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씻지 않은 손으로는 가능한 한 코나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최대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실내라면 규칙적인 환기와 적절한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평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여야 하며 만약 독감 증상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받아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동협력체계 구축



고대 구로병원은 9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구로경찰서 2층 미래홀에서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구로성심병원,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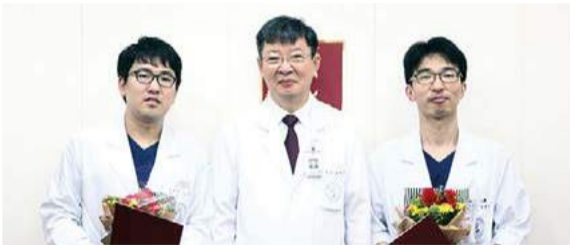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민·관·경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학대 등을 경험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고 효율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의료지원 및 상담·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일부만이 서비스를 신청해 왔었다. 이에 구로구 내 유관기관들이 보다 나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뜻을 합한 것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피해자 의료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는 관련 서류를 직접 구청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비를 피해자가 아닌 구청에 청구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 유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치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 및 권리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기록정리 우수 전공의 포상



고대 구로병원은 8월 23일(수) 행정동 3층 원장 접견실에서 7월과 8월 두 달의 의무기록 작성 우수 전공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7월 의무기록 작성 우수 전공의에는 비누기와 정형국 전공의가 선정되었으며, 8월 의무기록 작성 우수 전공의에는 산부인과 배나영 전공의가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 포상식에는 지난 1/4분기 동안 의무기록 정리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정리율이 가장 뛰어나게 향상된 전공의에게 JUMP UP 상을 시상했다. JUMP UP 상은 신경과 김재현 전공의에게 돌아갔다.

은백린 병원장은 "우리 고대 구로병원은 많은 환자분들을 내원하시기 때문에 특히 의무기록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에 속한다"라며 "앞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어 의무기록 정리에 힘써 주시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대 구로병원은 의무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의무기록정리 우수 전공의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심포지엄 성료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센터장 이흥만)는 8월 30일(수) 오후 1시 임병원 10층 회의실에서 '2017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심포지엄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지원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의료기기 테스트를 위한 규격과 표준 사항, 인허가 방법 및 사례를 보다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흥만 센터장은 "우리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변화하는 의료기기 산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보다 수월하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증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게 규격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는 지난 7월 18일에 개소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의 편의성, 위험 요소, 사용 방법 등 세분화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조로운 상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과정도 함께 진행하며 다각화된 개발 업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83병동·72병동, 마약류 관리 우수부서로 선정



고대 구로병원은 23일(수)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2017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식을 가졌다.

상반기 우수부서로 선정된 곳은 83병동과 72병동이다. 두 병동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두 부서에게는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은백린 병원장은 "마약류 관리는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두 병동은 흡입을 데 없이 철저하게 마약류를 관리해 주셔서 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약품 오·남용을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모습으로 타 부서의 귀감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대 구로병원은 우수부서 포상을 통해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수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료 사각지대,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고대 구로병원은 8월 29일(화)과 9월 1일(금) 양일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Nukus Branch of 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를 초청해 병원 투어 및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 기술 이전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타슈켄트 소아외과대학 누쿠스 캠퍼스 총장 오랄 아타니아조바(Oral Ataniyazova)를 포함한 의료 관계자 총 7명으로 구성된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은 고대 구로병원과 안암병원을 방문하여 투어를 진행하고 실제 병원 건립을 위한 자문을 구했다.

병원 투어 및 업무협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간 의료시장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인 누쿠스 지역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고대 구로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환경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였고 세계 유수의 병원과 어깨를 마주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선진의료라는 것을 입증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두 병원은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각종 온오프라인 회의는 물론 병원 인력 교육, 환자 의뢰, 세미나 및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예정이다.

아름다운 사랑 나눔 현장, 호스피스 바자회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회(회장 김한겸)는 9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관 1층 정문 앞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2017 호스피스회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호스피스회 사랑 나눔 바자회는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회 주최로 실시된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와 호스피스병동 운영기금, 자녀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바자회는 내원객과 교직원들의 후원을 받아 의료, 잡화,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기증품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 진행됐다. 이번 바자회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회 환원에 이바지하는 일인 만큼 행사를 찾는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회는 1992년 창설되어 올해 25주년을 맞았으며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 내·외부 기부자 발굴, 정기 바자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유관기관과 대규모 재난 상황 대비 합동 모의 훈련

고대 구로병원은 9월 8일(금) 오후 3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2017년 병원재난상황 환자대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재난 훈련은 서울시보건 의료정책과,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로구청, 구로보건소, 구로소방서 등 다수의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2시간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됐다. 구로병원 행정동 옥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앞 주차장에서 실시된 훈련은 병원 내 주취자 난동 발생 상황과 폭발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진행됐다.

구로병원은 채성원 재난관리FT 위원장, 박홍석 적정진료관리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재난대책위원회 및 응급의학과를 주축으로 해 전 교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맞춰 원내 화

재진입팀의 초기진화, 화재신고, 재난의료대응팀 가동, 비상진료구역 설치 및 운영, 환자 응급처치 등 일사분란하게 참여하여 재난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매년 재난·재해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초동 대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력을 키워오고 있다.



형식적인 친절의 함정



병원에 근무한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느 곳에서든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친절인 요즘,
 말로만 친절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보게 됩니다. 미소, 말투, 외모, 화장법까지도
 친절 평가 항목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편하게 진료를 받고
 귀가하도록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형식적인 친절로 무장하더라도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화 상담원들과 대화하다보면 그 직원의 친절함이 마음에 진하게 녹아있는 것인지, 말투에만
 덧칠되어 있는 것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려한 멘트와 정형화된 억양, 말의 고저(흔히 말하는 '술' 톤)는 훈
 련에 의한 결과물일 수 있지만 친절함은 훈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연습된 말투를 구사한 나머지 대화
 를 하고 있음에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거나, 한 음절마다 질질 끌면서 말하는(상-담-사- XXX입-니-다-)
 상담원과 대화를 하고 있노라면 문의한 내용이나 얼른 말해줬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1분이라도 빨리 대화를
 끝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담원과 대화할 때면 형식을 조금만 버리고 일상 대화하듯이, 고객의 요
 구나 문의에 응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 상담원과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업무처리는 능숙하지 않았으나 저의 요청과 많은 질문에도 성
 심껏 답해주는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원은 말투가 훈련되지 않았고,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
 지만 마지막까지 더 궁금한 점은 없는지, 문의한 내용을 넘어서 다른 유용한 정보까지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서 전화상담은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평소 저의 전화습관과 마음
 가짐을 돌아켜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응대하다보면 어느 순간 친절함이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진정
 성 있는 친절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할 때 환자분에게 감동이 전해져, 진심으로 반응하며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
 소 형식적인 친절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면 형식적인 면은 잠시 접어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면 어
 떨까요.

저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를 환자분들께 실천하려는 다짐을 해봅니다.

고대 구로병원 모든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이정옥]

환자별 자가 진단법

여러분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뇌졸중

온도 변화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말초동맥이 수축돼 혈압이 높아
 저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나이
 가 들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모양이 변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졸중이 발병하면 뇌기능에 심각한 악영
 향을 미쳐 장애가 발생하며 돌연사의 주원인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증
 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검사 받기를 권장합니다.

대표적인 뇌졸중 전조증상

01

한쪽 팔 다리에 힘이 쉽게 빠진다.



02

얼굴이 마비되며 발음이 어눌해지고
 눈 한 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



03

이전에 느끼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한다.



뇌졸중 예방하는 생활방법

1. 혈관 관리를 위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싱거운 음식을 먹자.
2.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하자.
3. 비만, 흡연, 과음, 불면증 등을 관리하자.



칭찬열차



112호 칭찬열차 주인공

의료정보팀 최 성 옥 님

순환기내과 이미로 님이 의료정보팀 최성옥 님을 추천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어
 추천합니다.



112호 칭찬열차 주인공

중환자실2 박 은 해 님

진료부 김세운 님이 중환자실2 박은해 님을 추천합니다

ICU 분위기를 밝게 해 주시는 선생님~ 갈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ICU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세요.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우리병원 칭찬열차 출발 : 전 직원이 칭찬열차에 탑승할 그날까지

고대 구로병원 건강강좌

09

September 2017

웰빙강좌
02-2626-1540

당뇨강좌
02-2626-1091

신장내과
02-2626-1791

정신건강의학과 (ADHD 부모교육)
02-2626-1230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4	5	6 수요웰빙강좌 (금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7 당뇨교육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8
11	12	13 수요웰빙강좌 (비만과 대사증후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4 당뇨교육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5 신장내과교육 (만성콩팥병과 투석) 의생명연구소 1층 [대강당] 오후 2시
18	19 ADHD 부모교육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20 수요웰빙강좌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21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2
25	26 ADHD 부모교육 (도움이 되는 치료)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27 수요웰빙강좌 (림프부종 및 임환자 건강관리)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28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9

10

October 2017

웰빙강좌
02-2626-1540

당뇨강좌
02-2626-1091

신장내과
02-2626-1791

정신건강의학과 (ADHD 부모교육)
02-2626-1230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2 정상 진료 *일부 진료과는 휴진할 수 있습니다	3	4	5	6
9	10 ADHD 부모교육 (부모 역할 훈련)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11 수요웰빙강좌 (금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2 당뇨교육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3
16	17 ADHD 부모교육 (의사 소통)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18 수요웰빙강좌 (비만과 대사증후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9 당뇨교육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0 신장내과교육 (만성콩팥병과 고혈압) 의생명연구소 1층 [대강당] 오후 2시
23	24	25 수요웰빙강좌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26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7
30	31 ADHD 부모교육 (보상 기법)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11/1 수요웰빙강좌 (림프부종 및 임환자 건강관리)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1/2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1/3

건강한 식탁



속이 짝 찬 가을 꽃게로 끓이는 꽃게탕

가을 별미하면 꽃게로 끓여낸 시원 칼칼한 꽃게탕을 빼 놓을 수 없다. 가을 꽃게는 살이 올라 맛도 일품이며 키토산과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까지 높다. 오늘 저녁, 제철 맛있는 가을 꽃게로 푸짐하게 꽃게탕을 끓여 보자.

<재료>

가을꽃게 3~4마리, 무 반토막, 양파 반개, 단호박 반개, 대파 반개, 고추 2개, 다시마, 소금, 후추 약간

양념장

고추장 1/2큰술, 고추기름 2큰술, 된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건새우간 것 1/3큰술 등

[꽃게탕 끓이기]

1. 꽃게의 등딱지와 몸통을 분리하고 입, 아가미를 제거한 후 먹기 좋게 잘라둔다.
2. 무는 납작하게, 양파는 두껍게, 대파와 고추는 어슷썰어 준비한다.
3. 다시마로 15분간 육수를 낸 후, 양념장과 무를 넣어 끓이다 무가 말랑해지면 게를 넣는다.
4. 끓여오르기 시작하면 양파와 단호박을 넣고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고추와 대파를 넣어 살짝 더 끓인다. 🍲

[도움말: 고대 구로병원 영양팀]

